

191104 26차 단운위 속기록

19:04 개회

출석 회 보 꿈 거래 일치 불꽃 한길 악

회: 안건은 4개. 논의안건 2번이 다음 주로 미뤄져서, 결론적으로 3개. 보고안건 1번에서 말씀 드릴 사안이, 한신대 관련 여러 사안들을 인준했는데 정세가 너무 급박해서 그런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보니 본부점거도 들어가는 등 바쁘신 듯. 보고안건 2번을 보시면 어제 총운위 보고인데, 논의안건 1번은 선관위 예산 편성, 2번은 저희가 논의안건 1번으로 다룰 것. 논의안건 3번은 임시 전대 소집을 시도했는데, 인원이 최대 50명 정도 출석 가능해서 정족수가 70명을 넘기에 개회가 불가능해서 소집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 4번은 서울대학교가 점거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당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인권위에서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함. 이번에 징계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받은 소송 비용을 가지고 제대로 변호사 분을 선임해서 인권위 진정 사건을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자료가 수집되어야. 그것을 수집하겠다는 공지를 총학 단위에서도 올릴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듯. 인준은 중앙집행위원 인선의 건. 기존 중집장님이 다른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없어서 다른 분을 인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보고안건 3번으로. 간식사업을 진행했고, 두 번째 것을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행정실에서 사물함 개수를 조사해달라고 하심. 사물함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관리를 과사에서 하고 학생들이 분배만 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셔서 어떤 이유로 수합을 요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회대 차원에서도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사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단위보고를 할게요.

불꽃: 불꽃반은 저번주에 간식사업 진행. 그리고 저번 주에 일일호프를 진행하려다가 인원 참여 부족으로 무산됨. 내일 집행부 회의 예정.

악: 저희는 간식사업을 진행했고요,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한길: 저희도 간식사업 10월 중순에 진행했고, 저희 11/7에 일일호프를 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 나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3대 학생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꿈: 저희는 베어 자켓을 시켜서 오늘 왔고, 그리고 간식사업을 진행했고 11/8 일휴 진행 계획. 11/13또는 14일에 꿈알전 회식 예정. 다음 주부터 선거 후보 추천 기간.

일치: 23일에 간식사업 했고, 그 이전에 회장 궐위 시기 코치 자켓을 단체로 맞췄는데 그게 최근에 왔음. 운영위를 몇 번 진행했고, 최근 운영위원들끼리 논의를 했던 것이 단운위에 올린 공지 관련된 내용.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치반 대표로 여기서밖에 말할 수 밖에 없는 듯. 징계 범위 등은 인정하나 징계로 인해서 과반 공지방 결정은 과반에서 해야 하

나 외부에서 간섭한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음.

겨레: 14일에 사라지에서 야식 사업을 했고, 11/14일에 지리학과 엠티를 설립 파티룸에서 하고 이후 겨레반 학생회장 선거 예정.

악: 보고할 만한 사항이 하나 더 있음. 이번에 학과장님과 면담을 했었는데 학생 지원 부분에서 예산안 공개를 해주신다고 했음. 세부적 내용까지는 아니고 대략적 틀을 공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를 토대로 11월 말에 교개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 저는 이 자리가 아니면 못 드릴 말씀이라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면서 선거시행세칙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변론권이 지금 세칙 상에서는 보장되지 않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총학 세칙도 전체 문안을 읽어본 것은 아니나 총학에서는 선본 이외의 구성원은 최대 징계 범위가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그는 대중 공고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준용을 해서 시행세칙이 한 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행세칙 개정을 해보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혹시 더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안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논의안건 1번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총운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본부에는 간담회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됨. 저희 단위에서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논의안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악: 개편방안의 변경안을 보면 8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보장이 되는 것인지?

회: 계획안 상에서는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레: 그러면 8분위 이하는 다 공짜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인지?

회: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꿈: 꿈반 내 의견으로는 첫 번째는 왜 성적장학금이 폐지가 되었는지? 그 배경이 최근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해버려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음.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는 의견. 그리고 8분위 이하면 다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고 하는데 소득분위 상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8분위와 9분위의 차이가 큰가? 에 대한 의견도 있고, 이미 학생들 사이에 소득분위 상정 방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선한 인재 지원금을 확대한다면 9분위, 10분위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이 변동이 별로 없을 거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회: 보통 근로장학의 배정에도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지? 과마다 다르다고는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꿈: 8분위까지는 등록금을 다 받으니 근장에서 9, 10분위를 많이 주면 어느 정도 절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회: 합의되고 있는 지점은 폐지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 어제도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또 9~10분위 학생들도 교내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겨레: 여기의 표가 어떤 경로로 얻게 된 표인지?

회: 어제 들은 바로는 표를 학교 측에서는 공개를 안 했는데 언론사에서 발견된 표를 주워왔다고는 합니다.

겨레: 대학본부와는 이야기가 오간 것이 없는 것인지?

회: 총학 대표자가 봤는데 외부 반출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맞는 듯.

악: 의견 수렴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렴 이후에 다음 단운위에서 재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견 수합해서 총운위로 올리는 것인지?

회: 지금까지 논의는 다른 단과대의 논의와 비슷해서 총운위로 올리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주장이 있다면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총운위에도 전달할 수 있을 듯.

일치: 저도 이거를 계속 보기는 했지만 공식적 회의 등을 통해 반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라서요, 제 생각도 있기는 하나 일치반 대표로써 말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반에서 논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유가 될까요?

회: 총학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틀에서 벗어나는 사회대의 요구가 없다면 그 방식에 맞춰서 의견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 반 단위에서 의견 수렴을 한 이후 단운위에서 재논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저에게 내려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인데,

회: 그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기는 하나, 일단은 가능한 한 다음 단운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더 없으시다면 다음 단운위에서 논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논의안건 3번으로. 저희가 난민인권 공동행동에 가맹 중인데 아직 분담금을 납부한 적은 없고,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체로 3만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상황. 아직 분담금이 많이 건히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분 금액을 자율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수입에서 지출 내역을 빼보시면 앞으로의 지출 예상에 비해 모자란 상황이기도 해서, 빨리 분담금을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활동 설명을 드려야 할 듯. 학내에 입장문을 학내에 게시했고, 두 번째로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관련한 지출 내역도 마지막으로 사업이 간담회, 강연회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연사비 20만원, 사비지출 환급 55000원, 다과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질문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꽃: 혹시 난민인권에게 예산을 분담하는 다른 학생단위가 어디가 있나요?

회: 가맹한 단위는 사회대 학생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치: 연사비에 20만원, 각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 2부에 3분이 오시는 것. 5만원도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가 나름 외진 곳에 있고 오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익을 보는 비용은 아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반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길: 저는 찬성 의견 남기고요, 저희가 처음에 공동행동에 가맹하기로 했을 때 여러 취지들이 있고 공동행동이나 이런 곳에 가맹을 할 때 최소한의 책임으로 있는 것이 분담금이라고 생각하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3만원이면 책임을 다하기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 의견 남깁니다.

회: 저도 의견을 하나 남기자면 저희가 가맹 여부가 오래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그 동안 분담금 요청을 받았으나 단운위가 안 열려 제대로 논의하지 못 한 상황. 지금까지 지출된 것도 많은 부분이 사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맹을 함께하기로 한 단위가 어느 정도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찬성의 의견을 남깁니다. 혹시 찬반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박수로 인준하겠습니다.

논의안건 4번은 일치반 학생회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 일단 발제를 드리면, 사라지의 문제와 사회대 도서관의 문제가 나뉘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pc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대 행정실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보시면 기본적인 사양이 대체로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활용하는 작업들이 그래픽이나 사양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기본적 문서 작업이라서, 엄청 떨어지는 사양은 아니라고 생각함. 고장난 피씨가 많다는 것이 1차적 문제고,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최소 사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성해봄. Cpu는 i3가 들어가고, 램도 4기가는 최소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미 ssd가 설치되어 있기는 함. 그래도 새로 교체 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사도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여기의 예산은 모두 행정실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2층의 pc룸은 사회대 도서관장님이 노력해서 조성한 공간임. 그런데 그에 대해서 행정실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탐탁지 않아할 지점이 있는데, pc가 총 15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 중에 6대를 제외하고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황. 대형 복합기 프린터도 2대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개선 요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최소한 고장난 피씨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실에 공식적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해결방안인 것 같습니다.

약: 이거는 피씨 관리 현황 조사인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프린터에 관련된 것이 있었음. 그러면 현재 사라지의 프린터는 cp게이트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듯 한데, 사도에 프린터가 방치가 되어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회: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가 모두 고장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일치: 지난 주에 사용을 했는데 프린터는 잘 작동이 됐습니다. 거기서 프린트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프린터가 아예 꺼져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컴퓨터/프린터 모두 켜져 있으면 작동이 되기는 합니다.

악: 제가 알기로 사도에 있는 프린터가 cp 게이트의 프린터와 같은 것인지?

회: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악: 아마 사라지 프린터는 usb를 바로 꽂아서 프린터가 가능한 모델. 만약 사도에서도 유료인지, 무료인지?

일치: 사도도 cp카드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악: pc 자체를 지금 당장 마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저는 usb로 바로 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이 방식은 컴퓨터를 통해 프린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에 금액이 들지는 않음.

회: 저는 사실 궁금했던 지점은 최소 사양을 이 정도로 요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것을 우선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다 끝났는데, 저희가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면 좋을 듯. 11일에 하면 안건이 생길지?

악: 성적 장학금 관련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무리일 것 같아서.

회: 18일도 애매

꿈: 그 때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어떤지?

일치: 오늘 못 다룬 안건도 이후에 다룰 수 있음.

꿈: 논의안건 1번도 더 논의하고, 2번도 할 수 있으니.

회: 그러면 11일에 한 번 소집을 해볼까요? 11일, 25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11일에 봅시다 저희. 18일에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